

군에서의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일연구

독 고 순 · 흥 속 지*

I. 서 론

선진국의 경우 국방이나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활발한 조사가 시행되어 왔다., 미국의 국방 인력 데이터 센터, 미 육군 행동 및 사회과학 연구소(ARI) 등에서는 군내외의 문제에 대해 국민과 장병의 인식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또 정책 결정의 주요 근거 자료로 조사 연구를 활용하기도 했다.

그간 한국 군에서도 여러 형태의 설문 조사가 있어 왔다. 각급 부대에서 병사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되는 간단한 소원 수리 형태의 조사에서부터 정책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 및 인식 조사 등도 있었다. 그러나 그간의 군 조사들은 많은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기획, 수행되어 온 까닭에 조사의 객관성이나 과학성이 담보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군내외적으로 그다지 신뢰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단순히 조사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이라는 측면 뿐 아니라, 군 조사의 방법이나 환경 측면에서 사회와의 차별성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군 조사에 대해 때로 미심쩍은 태도를 갖도록 하기도 했다. 예컨대, 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위계적 구조를 갖는 군 조직 특성상 자유로운 응답이 불가능하거나 대리 응답이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군은 상대적으로 다원성이 경시되며 통일성, 획일성, 단체성,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최근 신세대 장병이라 일컬어지는 세대의 유입으로 이러한 문화가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문화는 군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엄연히 장려되고 있는 것이므로 모든 주제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장병들은 전체 의견에 반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어느 정도 부담을 갖는 문화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군인은 자신이나 가정보다는 국가 이념이나 공공선을 우위에 두도록 훈련받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군의 생활 방식과 교육 훈련은

*한국국방연구원

장병의 사고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설문 조사시 응답자 자신의 생각보다는 정답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 조사에 대한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불성실하거나 왜곡된 응답으로서 또는 하나의 성격 특성으로서 병사들의 사회적 바람직성에 주목하고, 병사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최근의 조사 과정에서 보면, 앞에서 지적된 조사상의 문제점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시 병사들은 주로 부대내 교회나 식당, 또는 내무반이나 운동장 등에 모이게 되는데, 비교적 자유로운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내 인권 실태 조사와 같은 비교적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병사들은 설문 조사에 응답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일반인보다 사회적 바람직성 측정 시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비록 병사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군내 설문조사에서 병사들의 응답 왜곡 가능성 및 설문 조사의 신뢰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병사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군내 조사 설계 및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도구 및 대상

1. 연구 도구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은 자기 보고 검사 상황에서 자신이나 남들에게 자기를 보다 바른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려는 태세를 나타낸다(Reber; 박중규, 2002에서 재인용). 자기 보고식 검사에서 문항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해 보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 피험자는 상황에 따라, 더 좋게 보이고자 하는 반응(fake-good)과 나쁘게 보이려고(fake-bad) 반응하는데, 이러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반응을 선택하는 경향성을 사회적 바람직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은 주로 선발 장면에서의 성격 검사의 응답 왜곡의 지표로서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사회적 바람직성은 성격 검사에서 타당한 측정을 모호하게 하는 오염원으로 암묵적으로 가정되어지면서(Cronbach, 1946; Edwards, 1957, 정보라, 2005에서 재인용),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가 잠재적인 성격 특성을 측정한다는 제안들이 나오게 되었다(Block, 1965; Furnham, 1986; McCrae & Costa, 1983; Nicholson & Hogan, 1990; 정보라, 2005에서 재인용). 즉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성격 구인에서 중요한 개인차를 측정하는 것으로, 반응 왜곡의 지표가 아니며 (McCrae & Costa, 1983), 실제적으로 정서적 안정성과 성실성과 관련되는 개인차를 반영하는 성격특성이라는 의견이 Ones, Viswesvaran & Reiss(1996)의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다양한 척도를 통해 측정되어져왔다. 대표적인 척도로 Crowne과 Marlowe(1960)가 제작한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MCSD)은 긍정형 18문항과 부정형 15문항의 33문항으로 구성된 진위형 이분척도이다. 후에 Reynolds(1982)는 위의 33문항 중에서 13문항만으로도 원판과 동등한 심리 측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13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 외에도 MMPI Lie 척도(Hathaway & Mckinley, 1951), Wiggins(1964)의 sd 척도, Gough (1957)의 Good Impression 척도, Paulhus(1998)의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7(BIDR-7) 등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문항 수 및 응답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13문항으로 구성된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MCSD)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Crowne과 Marlowe(1964)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DS: Social Desirability Scale) 33개 문항 중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을 이주일(198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한 이연경(1999)¹⁾의 논문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진위형으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응답방향에 따라 응답할수록 높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채점된다. 이연경(1999)의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5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63이었다. 각 문항과 응답방향은 아래와 같다.

1. 나는 누군가 격려를 해 주지 않으면 내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N)
2. 내 마음대로 못할 때 화가 난다.(N)
3. 나는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일을 포기한 적이 있다.(N)
4. 나는 권위자들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들에게 반대하고 싶을 때가 있다.(N)
5. 나는 누구와 이야기를 하더라도 항상 경청한다.(Y)
6. 나는 가끔 남을 이용한 적이 있다.(N)
7. 언제나 나는 나의 실수를 기꺼이 시인하려고 한다.(Y)
8. 때때로 나는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보다는 앙갚음하려고 한다.(N)
9. 나는 내 맘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항상 예의바르다.(Y)
10. 나는 사람들이 내 생각과 매우 다른 생각을 나타낼 때, 결코 불쾌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Y)
11. 가끔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운에 띄 질투를 느낀 적이 있다.(N)

1) 이연경. 1999. "약물남용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 올 때에 때때로 짜증이 난다.(N)

13. 나는 고의로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Y)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국방연구원 사회조사통계실에서 2007년 4월 26일부터 5월 4일 까지 사병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부대 방문 조사와 5월 31일부터 6월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현대리서치에 의뢰)를 통해 수집되었다. 군 조사의 경우 표본 추출은 전군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군별, 임무특성별 유의할당 추출을 통해 이루어졌다. 총 2,330 명의 응답자 중 누락반응 등을 제외한 2,314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민 조사의 경우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설문 분석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최종 설문 분석 대상

병사	계급				총합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육군	338	417	429	355	1,539
해군	28	62	108	92	290
공군	51	92	142	117	402
해병대	9	23	40	11	83
총합	426	594	719	575	2,314
결측값의 개수=16					

국민	전체	990
성별	남성	472
	여성	518
연령별	만 20~29세	215
	만 30~39세	209
	만 40~49세	225
	만 50~59세	163
	만 60세 이상	178
결측값의 개수=10		

Ⅲ. 주요 결과

1. 선행 연구와의 비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축형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13문항에 대한 전체 빈도분포는 <표 2>와 같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반응의 평균값은 7.54점이며, 표준편차는 2.67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척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5점 이하인 경우는 전체 병사의 22.3%에 지나지 않으며, 7점 이상을 획득하여 높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보고하는 병사들이 65.8%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병사들의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단축형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분포(병사)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00	6	.3	.3
1.00	28	1.2	1.5
2.00	50	2.2	3.6
3.00	78	3.4	7.0
4.00	153	6.6	13.6
5.00	202	8.7	22.3
6.00	275	11.9	34.2
7.00	316	13.7	47.9
8.00	358	15.5	63.4
9.00	282	12.2	75.5
10.00	251	10.8	86.4
11.00	157	6.8	93.2
12.00	97	4.2	97.4
13.00	61	2.6	100.0
합계	2,314	100.0	

본 연구에서 조사된 병사들의 사회적 바람직성은 동일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한 타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병사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평균 점수(7.54)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이연경(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일반 청소년 평균점수인 4.71(SD=2.43)보다 훨씬 높으며, 약물청소년의 평균점수 4.69(SD=2.34), 비행청소년의 평균점수

5.66(SD=2.71)보다도 훨씬 높다. 또한 박중규(2002)의 '청소년용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개발을 위한 예비연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13문항 중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2문항을 제외한 11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는 3.18(SD=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에 해당하는 2문항을 제외하고 동일한 11문항으로 분석해 본 결과 평균점수 6.17(SD=2.3)로써 거의 3점 가량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박중규(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번역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매우 높은 점수차이임을 알 수 있다.

<표 3> 선행연구들과의 사회적 바람직성 평균점수 비교

본 연구	약물남용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이연경, 1999)		
병사(13문항)	일반청소년	약물청소년	비행청소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7.54(SD=2.67)	4.71(SD=2.43)	4.69(SD=2.34)	5.66(SD=2.71)
병사 (11문항 분석시)	청소년용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박중규, 2002)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6.17(SD=2.30)	3.18(SD=2)		

다음으로 군의 소속 및 계급에 따라 병사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병사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 평균은 군의 소속에 따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고($F=6.75, p < .001$), 계급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났고($F=4.06, p < .01$). 즉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소속에 따른 병사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ukey 방식을 사용한 사후 분석에서 육군이 공군보다 유의하게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p < .05$). 또한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의 계급에 따른 병사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 평균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Tukey 방식을 사용한 사후 분석에서 병장계급이 일병과 상병계급에 비해 유의하게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p < .05$). 소속별, 계급별 점수 평균은 <표 4>, 변량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 소속, 계급별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 평균

소속	평균	N	표준 편차	계급	평균	N	표준 편차
육군	7.69	1,539	2.63	이병	7.72	426	2.62
해군	7.45	290	2.83	일병	7.38	594	2.70
공군	7.02	402	2.58	상병	7.36	719	2.63
해병대	7.53	83	2.87	병장	7.79	575	2.69
합계	7.54	2,314	2.67	합계	7.54	2,314	2.67

<표 5> 소속별, 계급별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의 변량분석(ANOVA) 결과

		제곱합(SS)	자유도(df)	평균제곱(MS)	F
소속별	집단간	143.16	3	47.72	6.75***
	집단내	16326.07	2,310	7.07	
	전 체	16469.23	2,313		
계급별	집단간	86.43	3	28.81	4.06**
	집단내	16382.8	2,310	7.09	
	전 체	16469.23	2,313		

* p<.05, ** p<.01, *** p<.001

2. 국민 조사 결과와의 비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축형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13문항에 대한 국민 전체 빈도분포는 <표 6>과 같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반응의 평균값은 7.69점으로 병사들의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5점 이하인 경우는 전체의 19.3%에 지나지 않으며, 7점 이상을 획득하여 높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보고하는 국민들이 70%를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단축형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분포(국민)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00	11	1.1	1.1
1.00	5	0.5	1.6
2.00	9	0.9	2.5
3.00	26	2.6	5.1
4.00	52	5.2	10.3
5.00	90	9.0	19.3
6.00	103	10.3	29.6
7.00	139	13.9	43.5
8.00	167	16.7	60.2
9.00	154	15.4	75.6
10.00	120	12.0	87.6
11.00	75	7.5	95.1
12.00	39	3.9	99.0
13.00	10	1.0	100.0
합계	1,000	100.0	

전반적으로 남성은 7.77, 여성은 7.62로 성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대의 사회적 바람직성은 6.86인데 비해 30대는 7.52, 40대는 7.87, 50대는 7.94, 60대는 8.44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병사들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20대 남성만을 구분하여 보면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는 7.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7.54점은 같은 연령대의 남성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7> 국민 성별, 연령별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 평균

성	평균	N	연령	평균	N
남성	7.772	472	만 20-29세	6.867	215
여성	7.623	518	만 30-39세	7.526	209
			만 40-49세	7.871	225
			만 50-59세	7.946	163
			만 60세이상	8.446	178

IV. 고찰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 몇 가지 토론 사항이 도출되었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조사 결과가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데 이에 대한 뚜렷한 설명 요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병사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평균 점수(7.54)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이연경(1999)의 연구 결과인 일반 청소년 평균 점수인 4.71, 약물청소년의 평균 점수 4.69, 비행청소년의 평균 점수 5.66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박중규(2002)의 연구와 같이 13문항 중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2문항을 제외한 11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병사들의 평균 점수는 6.17로 해당 연구의 평균 점수 3.18에 비해 거의 두배에 가깝게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찾기 어려운데, 다만 국민 조사 결과에서 연령대별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참조한다면, 10대인 청소년의 사회적 바람직성의 점수가 주로 20대로 구성되는 병사들에 비교하여 낮게 나타나는 것은 전체적인 경향성을 거스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병사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정도는 전체적으로 일반 국민이 보여주는 경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국민 조사 결과와 견주어 볼 때, 군 조직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병사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평균 점수는 7.54로 전체 평균 7.69, 전체 남성 평균 7.77에 비해 낮은 것이지만, 병사들의 연령대에 속하는 20대 남성 평균 7.13에 비교하면 약간 높은 것으로, 30대의 사회적 바람직성 평균 점수와 유사한 수준이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군의 조직적, 문화적 특성이 설문 조사시 병사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응답을 어느 정도 높였을 개연성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후속 조사와 논의를 필요로 한다.

셋째 본 논문의 주요 발견 사항이기도 한 것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정도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관성 있게 높아진다는 점과 관련된 사항이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자기 보고 검사 상황에서 자기를 보다 바른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려는 태세를 의미하며 피험자가 상황에 따라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는 반응 왜곡의 지표라고 이해되어 왔거나 이보다는 정서적 안정이나 성실성과 관련되는 성격 특성이라는 주장이 있어 왔다. 연령대별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수준이 일관성 있게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후자의 논의가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군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군 조사의 문제점으로 해석할 것인지 또는 군이 갖는 사회화의 기능에 주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내 조사에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으며, 군 조직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 군조직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응답자의 응답 태도에 대한 분석이 여전히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박중규. 2002. “청소년용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Inje Medical Journal, Vol.23. No 4, pp. 493~500.
- 이연경. 1999. “약물남용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보라. 2005. “사회적 바람직성의 구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lock, J.(1965). The challenge of response sets : Unconfounding meaning, acquiescence, and social desirability in the MMPI. New York : Appletom-Century-Crofts.
- Cronbach, L. J.(1946). Response sets and test valid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 475-494.Reber. Dictionary of Psychology. 2nd Ed. Penguin : London; 730-1.
- Crowne, D.P.,& Marlowe, D.(1960).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 Con Clin Psycho, 24: 349-354.
- Edwards, A. L.,(1957). The social desirability variable in personality assessment and research. New York : Dryden.
- Furnham, A.(1986). Response bias, social desirability and dissimul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 385-400.
- Gough, J. (1957). Mannual for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Pala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Hathaway, S. R., & Mckinley, J. C.(1951). The MMPI ,manual. New York : Psychological Corporation.
- McCrae, R. R., & Costa, P. T. (1983). Social desirability scales : More substance than sty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882-888.
- Nicholson, R. A., & Hogan, R. (1990). The construct validity of social desirability. American Psychologists, 45, 290-292.
- Ones, D. S., & Viswesvaran, C., & Reiss, A. D. (1996). Role of social desirability in personality testing for personnel selection :The red herr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 660-679.
- Paulhus, D. L. (1998). Mannual for 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BIDR-7). Toronto/Buffalo : Multi-Health Systems.

- Reynolds, W. M.(1982). Development of reliable and valid short forms of the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J Clin. Psycho*, 38 : 119-125.
- Wiggins, J. S. (1964). Convergences among stylistic response measures from objective personality tes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4, 551-562.